

소액 대출도 소득심사 한다

금융위원회, 대부업 규제 강화 발표 '단박에 대출' 등 자극적 문구 금지



삼성전자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셀피 찍는 즐거움을 극대화한 2018년형 스마트폰 '갤럭시 A8 시리즈'를 공개하고, 내달 1일 초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 2018년형 갤럭시 'A8 시리즈' 내달 출시

삼성전자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셀피 찍는 즐거움을 극대화한 2018년형 스마트폰 '갤럭시 A8 시리즈'를 공개하고, 내달 1일 초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갤럭시 A8 시리즈는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전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 고화질의 셀피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F1.9 렌즈에 각각 1600만,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해 셀피를 인물 위주로 촬영할지 혹은 배경 함께 촬영할지에 따라 사용자가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배경을 부드럽고 흐릿하게 처리하는 보케(Bkeh) 효과를 사용자가 직접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제공해 인물 사진 촬영의 재미를 더했다.

각각 5.6인치, 6.0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A8 및 갤럭시 A8+는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베젤은 최소화했으며, 한 손으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그립감을 제공한다.

또 18.5:9 화면 비율의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16:9 비율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21:9 비율의 콘텐츠도 모두 꽉 찬 디스플레이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갤럭시 A8 시리즈는 갤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도 대거 지원한다. A 시리즈 최초로 가상현실기기 '기어 VR'를 지원하며, IP68 등급의 방수·방진,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 페이', 데이터·이미지를 백업할 수 있는 삼성 클라우드, 화면을 켜지 않아도 시간과 날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했다.

갤럭시 A8은 블랙, 오키드 그레이, 골드, 블루 등 총 4가지 색상으로 2018년 1월 초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출시되는 모델과 색상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앞으로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폐지된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고 차후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전 대부업에서 상환 능력 고려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영업·심사·설명 및 계약·회수)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을 제고한다.

영업단계에서는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금지한다.

방송광고 총량 30% 수준을 유지하고 2회 연속광고 금지, 주요 시간대(밤 10~12시) 노출 비중 제한 등 광고의 집중 노출도 제한한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회 의 제재금 부과를 강제 규정화하고, 부과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 300만원인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하며, 다른 이용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심사 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한다.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한다. 대부이용자가 대출 유형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도록 설명서를 통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표나 저소득층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채권이 부실화된 경우 대부업자도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부담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캐피탈 등 다른 업권과 연계해 고금리 대출영업을 확대하지 않도록 대출·집입규제도 정비한다.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 직접설립·인수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판형 개선에 앞서 대부중개업 개선에도 나선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5%에서 4%로 1%포인트 인하하고 허위·과장 등 주요 불건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부중개업자의 다단계 중개와 다중중개 금지 등 금융권 대출 모집인 수준의 시장 규율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매입채권추심법 진입 규제는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시인원 5명 등 최소 인력 요건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등록 이탈에 따른 감독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에코퍼' 착한가격에 색상까지 그뤠잇!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 5층 옛코너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에코퍼 클러치백, 코트, 신발, 목도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리얼퍼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 소재로 모피 특유의 멋스러움을 내는 에코퍼는 동물 보호 여론의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트랜드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다. 가격은 일반 모피 가격의 3분의 1정도이고 커링제품은 15,900원, 코트는 289,000원에 판매한다.



올해의 가전 빅4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무선청소기

전자랜드 "올해 가전제품 판매 미세먼지 등 날씨상황 견인"

전자랜드프라이스킹(대표 홍봉철)은 2017년 연말을 맞아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무선청소기 총 4종의 가전제품을 올해의 가전으로 선정했다.

전자랜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판매된 가전제품 중 전년 대비 200% 이상 판매 증가한 제품을 올해의 가전제품으로 선정했다. 판매량 분석 결과 의류건조기는 3500%, 공기청정기는 400%, 의류관리기는 300%, 무선청소기는 230% 판매 성장했다.

의류 건조기는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증가했다. 2017년에는 매출 판매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기청정기 판매량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특히 한여름이 속한

3분기에도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까지는 여름철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줄었으나, 올해는 다른 계절과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미세먼지가 주요 환경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류관리기의 판매도 부쩍 증가했다. 무선청소기의 판매 증가도 자주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간편하게 청소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자랜드는 관계자는 "올해 가전제품 판매는 미세먼지 등 날씨 상황이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가전제품의 수명이 10년 이상인 상황에서, 교체수요보다 환경의 변화에 맞는 가전제품의 출현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뿌리기업 지원 강화 R&D 지원횟수 폐지·정책자금 한도 증대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분야에서 핵심뿌리 기술을 보유하고,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전남 지역 8개社(전국 62개社)가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장은 "뿌리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R&D, 스마트 팩토리 사업, 자금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 광주·전남 뿌리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